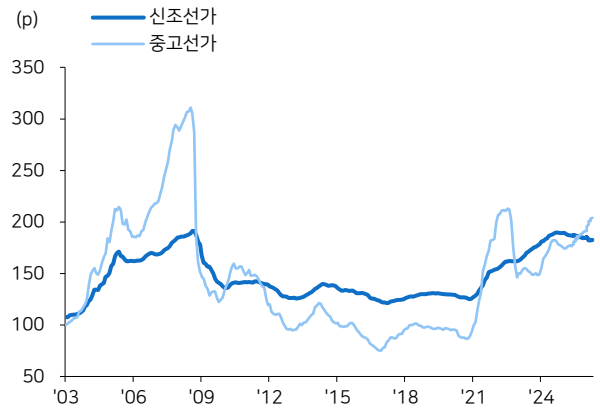
2026. 4. 14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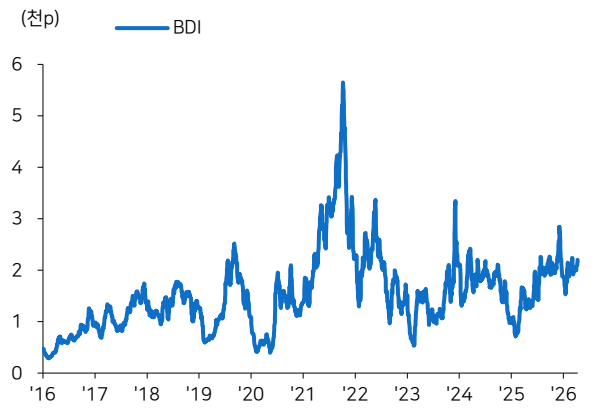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6p (+0.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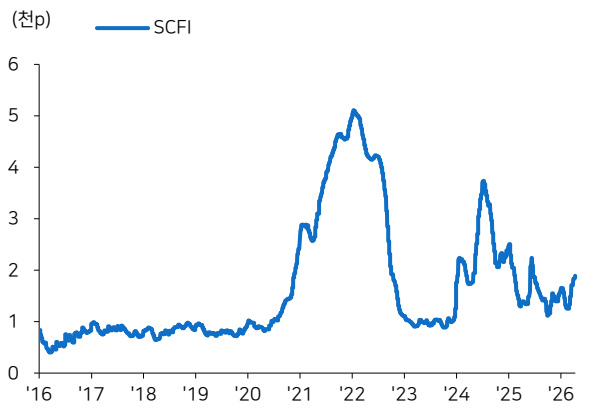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97.0달러 (+4.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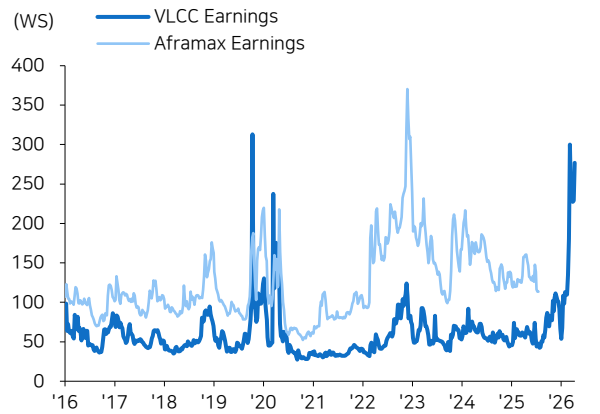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201.0p (+4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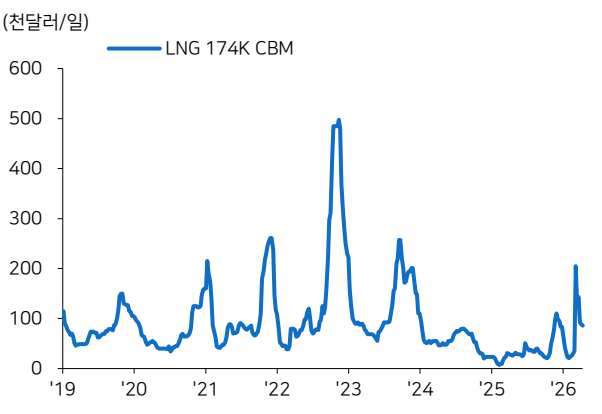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90.0p (+35.8p WoW)



VLCC Spot Rate 276.9WS (+47.8p WoW)



LNG Spot 운임 86.0천달러 (-2.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원팀' HD 현중·한화오션...태국 호위함 수주경쟁 (이투데이) https://zrr.kr/SzLx54

태국 왕립해군이 추진하는 약 8,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호위함 1척 도입 사업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돌입했다고 보도됨. 이번 사업은 최소 20%의 현지 건조 비율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단순 함정 제작을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파트너십 설계가 핵심 승부처가 될 전망이며, 오는 21일까지 제안서 접수가 진행된다고 전해짐. 양사는 정부 주도의 '함정 수출 원팀' MOU 예외 조항에 따라 각자 입찰에 참여하며, 한화오션은 기존 1차 사업 건조 이력을,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과 페루 등에서의 풍부한 수상함 수출 실적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알려짐.

'수상함' 키우는 한화오션, 해양정보함 첫 도전하나 (더벨) https://zrr.kr/KrzYFS

방위사업청이 2035년까지 약 2조 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해양정보함(AGX-III) 기본설계 입찰을 공고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기존 건조 경험과 한화오션의 첨단 무인화 기술력이 정면충돌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창사 이래 첫 해양정보함 분야 진입을 노리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최신 함정 기술을 제안할 계획이며, HD현대중공업은 과거 모든 해양정보함을 건조했던 독보적인 이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수성에 나선다고 전해짐. 이번 수주는 향후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향방을 가를 전초전으로 평가되며, 특히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될 보안 감점 여부가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입찰 결과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으로 알려짐.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이투데이) https://zrr.kr/B5pPoA

서울고등법원은 사학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리금을 상환받았더라도 과대평가된 신용등급으로 인해 비싸게 매입한 회사채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됨. 이번 판결로 사학연금 98억 원을 포함한 기관 배상액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500억 원 규모로 결정되었다고 전해짐. 여기에 지난해 국민연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442억원 배상을 확정받은 유사 사건 등을 포함하면 총 배상금액 규모는 원금만 1,228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총 2,000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짐.

안전책임자 직급 낮춘 HD 현대중공업,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과제 (블로터) ttps://zrr.kr/lx2lrb

HD현대중공업이 9가지 절대불가사고를 지정한 고강도 안전 정책 '더 세이프 케어'를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창정비 중이던 홍범도함 내부 화재로 협력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됨. 특히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직급이 사장급에서 전무급으로 낮아진 인사이동 직후 인명 사고가 터지면서, 2030년까지 3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안전 경영 의지와 컨트롤타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해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영진은 사과문을 통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외형 성장과 합병에 걸맞은 현장 안전의 내실 다지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알려짐.

Understanding worst-case scenarios in 'complicated' Middle East tanker markets (TradeWinds) https://zrr.kr/kFBfOL

미국과 이란 간의 이슬라마바드 평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선박에 대한 전면 해상 봉쇄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탱커 시장이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보도됨. Clarksons는 보고서를 통해 일시적인 휴전 시도에도 불구하고 해협 통항 위험이 여전히 커 선주와 화주 모두 선박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란 측이 요구하는 통행료 지불에 응할 경우 미국의 제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해짐. 데이터 분석업체 Kpler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일 원유 생산 능력이 약 60만 배럴 감소하고 동서 파이프라인 수송량 또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현재 중동 지역에는 갈 곳을 잃은 약 1억 3천만 배럴의 원유가 탱커에 실린 채 계류 중이라고 알려짐.

Sinokor Maritime finally scraps one of its long-term idle LNG carriers (TradeWinds) https://zrr.kr/cQVeDv

장금상선이 장기간 유휴 상태였던 140,708㎥급 노후 LNG 운반선 'Hongkong Energy(2004년 건조)'를 폐선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스팀 터빈 추진 방식의 멤브레인형 선박으로 말레이시아 링기에서 현 상태 그대로 인도되었으며, 총 매각 대금은 약 1,570만 달러(LDT당 약 510달러) 수준이라고 전해짐. 장금상선은 지난 10여 년간 장기 용선이 종료된 노후 LNG선들을 대거 매입했으나 대부분을 운항하지 못한 채 계류해왔으며, 이번 매각은 2026년 들어 다섯 번째 LNG선 폐선 사례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